

그때 그랬지...

‘선물’에 대한 기억



어느덧 2015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불과 35~6년 전 어릴적 그때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없이 살던 어릴적 따뜻한 기억이 생각나는 요즘, 바나나며 초콜릿이며 모든 게 귀하던 그때, 특별한 날 경험했던 ‘선물’에 대한 몇 가지 기억을 나누어 봅니다.



1. 라면땅 : 초등학교시절 버스비가 25원 하던 시절 출근하는 아버지께 먹고 싶던 라면땅을 사려고 큰맘 먹고 1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건네 주셨습니다. 그때 사먹던 라면땅이 정말 얼마나 귀했던지 아껴먹던 기억이 납니다.



2. 숯불고기 : 형편이 좀 어려웠던 어릴적 고기반찬은 한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생신 날에는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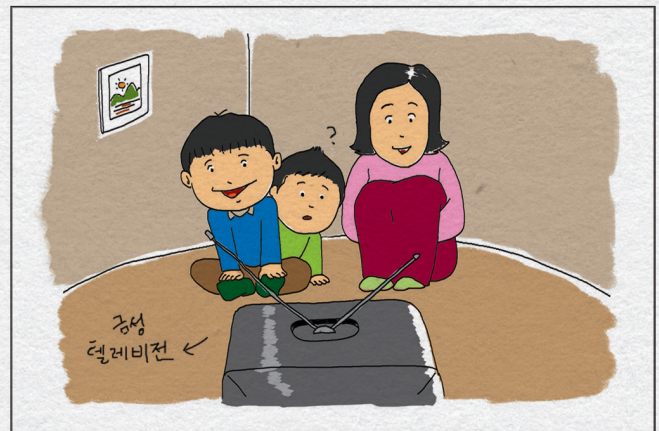


숯불 양념불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살짝 탄 고기맛이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 행복했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3. 텔레비전 : 어느날 아버지께서 약속했던 텔레비전을 사오셨습니다. 몇집건너 귀했던 전자제품으로 괜히 으스스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녹음기도 사오셨습니다.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아톰, 마린보이 등 명작 만화테이프도 사오셨습니다. 운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4. 새벽송 : 밤 12시 통금이 있던 시절, 12월 성탄절에는 통금으로 고요한 밤 촛불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메리크리스마스~'하던 새벽송을 불러주던 누나, 형들이 떠오릅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져 정겨움을 더했던 그때, 축복송이 끝날쯤 작은 선물을 양말에 넣어줬다가 수고하네요^^ 하며 건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적 그때보다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때 나처럼 열살 내외의 나이가 된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책도 사주고 성탄 장식도 함께 사면서 흥을 내 보지만 자녀들에게 그때만큼 큰감동, 큰기쁨, 아름다운 추억을 못주는 것같아 괜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새해 카드는 직접 만들어 선물해 보렵니다

